

“지지선언 줄세우기” 이용섭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강기정·양향자 광주시장 예비후보, 공동 기자회견

“거부시 폭언·압박 이어져...공천 무기 정치적 폭력·불공정 경선”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분경선을 코앞에 두고 특정 후보 진영의 반강제적 입후보자 줄세우기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천을 무기로 한 정치적 폭력”이라며 경쟁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후보자 자격박탈 등 중앙당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당원명부 유출과 함께 불공정 경선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양향자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후

보 측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예비후보들을 지지선언에 줄세우기해 경선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집단 행동이 있었고, 문자와 전화 등으로 줄세우기를 강요했고, 거

부할 경우 폭언과 압박이 이어졌다”며 “이는 명백한 공천을 무기로 한 정치적 폭력이고 불공정 경선”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두 후보 측에 따르면 광산구 A의원의 경우 이용섭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한달 전, “내가 명부를 가지고 있으니, 줄을 서라”는 말을 들었다. 이 측근은 광주지역 권리당원 명부 유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또 광산지역 B의원은 “기호를 가변을 줄세우니, 이용섭 후보를 도와라. 기호를 주는 것은 지역위원장에게 위임된 사안”이라는 요구를 받았고, 북구의 C의원은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거부했으나 지지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자와 전화 폭탄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남구의 D의원도 폭언과 “두고보자” 협박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한 구청장 예비후보 역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은 구배정치의 표본이어서 거부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같은 줄세우기는 민주당 광주지역 일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양향자는 후보는 이날 “이용섭 후보는 불법 유출된 권리당원 명부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권리당원 명부를 무기 삼아 입후보자들을 강제 줄세우기 하고 있다”며 “불법, 반칙에 대해 중앙당의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며, 불법 유출 권리당원 명부 회수와 후보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어린이 안전 1등, 성평등 1등 광주”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경제시장 2용섭의 12대 공약 중 9번 개인 여성과 아이들이 당당한 광주 만들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미세먼지·교통 안전·급식·안전시설·인터넷과 관련해 아이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골자로 한 5대 안심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특히 임기 내 과속 단속카메라

를 전체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설치하고 스포츠 표준모델을 확대해 아이들의 등·하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늘려 여성이 당당한 광주를 만들겠다는 구상 아래 ▲여성일자리지원종합센터 설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 조기 도입 ▲정부와 공공부문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등을 세부지침으로 제시했다.

윤민호 “후보들, 서주석 차관 사퇴 동참해야”

6·13 지방선거 민주당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는 17일 “5·18민주화운동 왜곡 전담 실무부서에

서 활동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사퇴를 위해 모든 시장후보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차관은 1988년 광주 5·18을 왜곡한 국방부 산하 511연구위원회 전담 실무위원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38년이 지나도록 5·18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누가 발표 명령을 내렸는지, 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했는지, 누가 학살 만행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며 5·18왜곡 당사자인 서 차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5·18특별법 후속조치와 이행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광주”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7일 반려동물 5대 정책으로 ▲시민참여형 반려동물

행동 기본계획 수립 ▲동물복지 확산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반려동물 인프라 개선 ▲생태관광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강 후보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반려동물 진용산책로 조성 및 길고양이 포용 정책으로 길냥이 급식소와 켄넬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 인프라 개편을 위해 현재 위탁 운영중인 동물보호소를 점진적으로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광주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30만 명”이라며 “반려동물 공약은 단순히 반려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부터 생명 일관까지 동물과의 동행을 통해 생명존중 등 시로 나아가기 위한 철학”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국제 SNS방송국 설립, 광주 홍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 SNS방송국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교육·복지·안전 분야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국제 SNS방송국 설립 ▲4564(45~64세) 복지정책 미련 ▲시립도서관 확충 ▲도시·대학 상생 프로젝트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지진 안전도시 ▲생 활복합형 안전도시 구축 등이다. 양 후보는 “광주의 문화예술 콘

텐츠와 랜드마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국내외 세계에 알리기 위해선 마케팅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SNS방송국을 설립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세계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광주를 알리고 광주를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SNS방송국이 설립되면 지역 중소기업 홍보 및집 소개, 전통 시장 홍보가 가능해 지역 상권과 골목상권 활성화, SNS 교육프로그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연루 의혹변진 ‘드루킹 사건’ 안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로 규정

특검·국정조사 등 요구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17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으로 변진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 “온 나라를 발칵 뒤집은 정권 실세 김 의원의 여론 조작 개입 사건을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이자 국기 문란의 범죄,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 행사에 혼란을 초래한 헌법 파괴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을 가

장 크게 속이는 대표적 국기문란 행위”라며 “헌법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는 심대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드루킹은 이미 특정한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조직 선거법 죄 그 자체”라며 “그런 면에서 진짜 드루킹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짜 드루킹을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임명 ▲국정조사·특별정문 회 개최 ▲김 의원 포함 핵심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청와대, 국회, 검찰에 요구했다.

박지원 “다스 주인 밝혀졌으니 이제는 느낌나무 주인 찾아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다스의 주인은 밝혀졌으니 이제는 느낌나무(출판사)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가까이 매년 역대 의 입대로, 운영비를 지출하고 책 한권 출판하지 않은 출판사가 있을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민주당 당원의 개인 일탈로 이 사건을 어쩔쩔 넘어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왜 느낌나무가 출판사가 아니라 댓글 공장이 됐는지, 누가 이 조작을 후원·응원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이명박·박근혜 댓글 사건을 수사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느낌나무는 누구 것 입니까’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 협조 및 검찰·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